

국제石油産業構造의 재편성과 우리의 対応戰略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I. 머리말

197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石油資源의 지배관계, 原油價格의 수준 및 결정방식, 原油去來의 형태, 석유제품의 시장구조 등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世界石油産業의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제2차 石油波動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이같은 변화에 대한 수습과정으로서 세계의 석유시장과 石油産業이 재편성되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라 하겠다.

제2차대전후 世界石油産業의 발전과정을 石油資源에 대한 지배관계와 시장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크게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石油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형성되고 메이저 主導下에서 저렴한 中東産 原油가 전세계에 공급되기 시작한 1950년대, 제2단계는 세계경제의 동시적 고도성장으로 石油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메이저 主導下에 풍부한 原油가 원활히 공급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OPEC가 형성, 成長한 1960년대, 제3단계는 石油資源에 대한 지배권이 메이저에서 OPEC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原油공급이 극히 불안정하였으며, 原油가격이 급상승한 1970년대, 제4단계는 70년대의 石油波動에 따른 석유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조정과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198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石油은 에너지源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石油精製業 또한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요原油量을 全量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精油産業에 있어서도 외국의 주요 메이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國際石油市場의 구조변화와 石油産業의 재편성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 확실하다.

本稿는 1970년대를 통하여 진행된 國際石油市場 및 석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世界石油市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OPEC와 메이저가 이같은 구조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國際石油市場의 최근동향과 構造變化

1. 最近動向

1983년 3월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제67차 런던 임시총회에서 基準油價를 史上 처음,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하고 OPEC의 全體産油量을 하루 1850萬 배럴에서 1750萬 배럴로 감축하였으며, 이를 다시 7월 헬싱키 총회와 12월의 제네바 총회에서 재확인하였다. 이로써 83년초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國際原油價는 年中 다소 기복은 있었으나, 대체로 안정세를 유

지하였다.

이와 같이 國際原油價格이 안정을 유지하게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年中 石油수요가 안정된 점이라 하겠으나, 이외에도 ① 하반기 이후 OPEC 각국이 產油

량을 상한선 이상으로 증대하여 공급량이 풍부하였으며, ② 石油盛需期인 4/4분기 이후를 대비하여 西方諸國이 3/4분기에 이미 재고를 확보하여 수급이 원활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表 - 1) 石油需給 및 價格推移

(單位 : 百萬B/D)

	1982	1983				年 間
	年 間	1 / 4	2 / 4	3 / 4	4 / 4	
需 要						
O E C D	34.30	34.70	32.30	31.90	34.90	33.50
其 他	11.90	11.60	11.60	11.60	11.60	11.60
合 計	46.20	46.30	43.90	43.50	46.50	45.10
供 給						
O P E C 生 產	18.44	15.22	16.53	18.30	19.00	17.30
非 O P E C 生 產	19.89	20.30	20.44	20.70	21.00	20.60
其 他 ¹⁾	5.47	5.50	5.50	5.50	5.50	5.50
合 計	43.80	41.02	42.47	44.50	45.50	43.40
在 庫 變 動	-2.40	-5.28	-1.43	1.00	-1.00	-1.70
期 末 在 庫(100萬 BBL)	4,020	3,550	3,420	3,510	3,420	3,420
在 庫 日 數 ²⁾	87	81	79	76	72	72
OPEC 平均 公 示 價 (\$ / BBL)	32.90	30.40	28.20	28.40	28.50	28.90

註 : 1) 액화천연가스, 共產圈으로부터의 純輸入 등을 포함.

2) 在庫日數는 다음 分期의 需要에 대비한 것임.

3) 自由世界의 需給 및 價格推移임.

4) 4/4분기는 예측치임.

(資料) 노무라 總合研究所, 「財界觀則」, 1983. 11.

2. 國際原油市場의 구조변화

최근 國際原油價格의 하락 또는 안정기조 유지는 前述한 바와 같이, 수급관계의 안정에서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國際原油市場의 구조변화에 있다 하겠다.

(1) 에너지 수요구조의 변화와 石油消費量의 감소

제 1차 石油波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1973년 부터 1982년까지의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량 및 그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表-2>와 같다.

주요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량은 1982년 현재 1973년에 비해 絶對量自體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石油의 소비량 감소가 현저하다. 이같은 石油소비량의 절대적 감소는 ① 제 2차 石油波動 이후 世界景氣의 부진이라는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② 石炭, 天然가스,

水力 및 地熱, 原子力 등 石油代替에너지의 이용증대 ③ 石油소비의 價格彈力性의 증가 ④ 石油소비의 효율화와 소비절약 등에 기인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石油代替에너지 이용증대와 石油소비의 價格彈力化는 앞으로도 계속 石油소비 증대를 억제할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에서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石炭, 原子力 등 代替에너지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石油소비를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總 에너지 소비중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54.1%에서 1982년 47.4%로 축소되었다.

한편 石油소비의 價格彈力性 추이를 보면 제 1차 石油波動이 발생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西獨의 경우 0.1, 프랑스의 경우 0.3 내외로 나타나 石油소비가 價格非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2차 石油波動 이후 價格彈力性은 1981년 현재 각각 0.23, 0.63으

〈表-2〉主要國의 에너지 消費構造 변화

(單位: 百萬TOE)

		石 油	石 炭	天然가스	水力·地熱	原 子 力	計
美 國	1973	818(44.9)	335(18.4)	572(31.4)	76(4.1)	22(1.2)	1,823
	1975	766(44.5)	323(18.8)	509(29.5)	80(4.7)	44(2.6)	1,722
	1979	868(45.3)	396(20.7)	499(26.1)	80(4.2)	72(3.8)	1,915
	1982	703(40.7)	395(22.8)	463(26.8)	90(5.2)	78(4.5)	1,728
日 本	1973	269(77.4)	54(15.4)	5(21.5)	17(5.0)	2(0.7)	348
	1975	244(73.8)	54(16.5)	8(2.3)	19(5.8)	5(1.6)	331
	1979	265(71.9)	50(13.7)	19(5.2)	19(5.2)	15(4.0)	369
	1982	207(60.8)	62(18.2)	25(7.3)	20(5.7)	27(7.9)	340
西 獨	1973	150(56.5)	82(31.0)	27(10.2)	3(1.2)	3(1.1)	265
	1975	129(53.1)	71(29.1)	34(14.2)	4(1.5)	5(2.1)	243
	1979	147(51.2)	80(27.8)	46(16.1)	4(1.5)	10(3.4)	287
	1982	112(44.9)	80(31.8)	39(15.4)	6(2.2)	14(5.7)	250
英 國	1973	113(50.4)	78(34.9)	26(11.6)	1(0.5)	6(2.6)	225
	1975	92(45.0)	72(35.2)	33(16.1)	1(0.5)	6(3.1)	204
	1979	95(42.6)	76(34.3)	42(18.9)	1(0.6)	8(3.7)	222
	1982	76(39.1)	65(33.8)	42(21.5)	1(0.7)	9(4.9)	193
프랑스	1973	127(68.4)	30(15.9)	16(8.4)	11(5.7)	3(1.6)	186
	1975	110(64.5)	27(15.5)	17(9.9)	13(7.8)	4(2.3)	171
	1979	118(61.3)	29(14.8)	23(12.1)	15(7.5)	8(4.3)	193
	1982	92(51.2)	27(14.8)	23(12.7)	16(8.6)	23(12.7)	181
自 由 世 界	1973	2,343(54.1)	826(19.1)	829(19.1)	286(6.6)	45(1.0)	4,329
	1975	2,198(52.3)	814(19.4)	800(19.0)	309(7.4)	80(1.9)	4,201
	1979	2,505(51.9)	959(19.9)	874(18.1)	349(7.2)	139(2.9)	4,825
	1982	2,187(47.4)	1,014(22.0)	853(18.5)	372(8.0)	190(4.1)	4,615

註: 1) TOE(ton of oil equiv.)=10⁷kcal임.

2) ()는 구성비임.

〈資料〉石油協會報

로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美國을 비롯한 석유 소비국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國際原油價의 상승에 따라 世界石油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石油生産構造의 변화

70년대에 OPEC가 지배해 왔던 國際石油 생산시장은 최근 5~6년 동안 크게 변화되었다. 즉 종래 中東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석유편익에 크게 좌우되어 왔던 世界石油생산시장은 OPEC제국의 감산정책과 美國, 英國, 멕시코, 캐나다, 中共, 소련 등 非OPEC제국의 생산증대로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세계의 原油생산량은 1973년 이래 1979년까지 연평

균 0.9%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1980년 이후에는 연평균 6.9% 감소하였다. 이같은 原油생산의 감소는 OPEC제국의 감축정책에 의해 주도되었다.

세계 原油생산실적을 OPEC 산유국과 非OPEC 產油國으로 나누어 보면, OPEC제국은 1973년 67.4%에서 1983년 42.3%로 감소한 반면, 非OPEC 제국은 1973년 32.6%에서 1983년 57.7%로 높아졌다. 한편 1983년에 와서는 非OPEC의 일부 국가들이 OPEC의 생산감축에 보증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아직 각국의 국내사정상 쉽게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예로서 OPEC의 정책에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멕시코의 경우에도 막대한 外債상환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原油 생산을 감축하지 못한채 오히려 前年比 55.8% 증가한 실정이다. 또한 OPEC의 原油生産 비중의 감소는

原油생산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판매시장에서의 OPEC C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즉 OPEC의 減産政策에도 불구하고 非OPEC제국의 原油생산이 증가되었으며,

石油소비국의 소비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原油판매시장은 1981년을 기점으로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로 변화하였다.

〈表-3〉 自由世界の 原油생산량 추이

(單位: 千B/D)

	1973	1975	1979	1981	1982	1983
O P E C	30,931 (67.4)	27,860 (66.2)	30,597 (63.2)	22,356 (54.2)	18,584 (48.5)	17,490 (45.7)
非 O P E C	14,970 (32.6)	14,241 (33.8)	17,851 (36.8)	18,920 (45.8)	19,768 (51.5)	20,824 (54.3)
美 國	9,225 (20.1)	8,370 (19.9)	8,650 (17.9)	8,588 (20.8)	8,655 (22.6)	8,669 (22.6)
멕시코	478 (1.0)	710 (1.7)	1,490 (3.1)	2,390 (5.8)	1,734 (4.5)	2,702 (7.1)
캐나다	1,750 (3.8)	1,450 (3.4)	1,480 (3.1)	1,287 (3.1)	1,233 (3.2)	1,396 (3.6)
西유럽	396 (0.9)	540 (1.3)	2,266 (4.7)	2,555 (6.2)	2,825 (7.4)	3,206 (8.4)
아프리카	467 (1.0)	479 (1.1)	862 (1.8)	1,031 (2.5)	1,124 (2.9)	1,460 (3.8)
아시아·대양주	945 (2.1)	897 (2.1)	1,292 (2.7)	1,167 (2.8)	1,277 (3.3)	1,413 (3.7)
其他	1,709 (3.7)	1,795 (4.3)	1,811 (3.7)	1,902 (4.6)	2,920 (7.6)	1,978 (5.1)
計	45,901 (100.0)	42,101 (100.0)	48,448 (100.0)	41,276 (100.0)	38,352 (100.0)	38,314 (100.0)

註: 1) 아시아·대양주에 인도네시아는 제외됨.

〈資料〉 Oil & Gas Journal에 의거 作成.

(3) 原油 供給方式의 다양화

原油의 공급은 1973년 이전까지는 메이저가 중심이 되었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의 과정에서 산유국의 石油産業 국유화가 완전히 달성됨에 따라 原油공급방식은 ① 産油國 국영기업과 소비국 정부간에 이루어지는 政府間 去來(Government to Government; G-G), ② 産油國 국영기업과 消費國기업간의 直接去來(Direct Deal; D-D), ③ 産油國 국영기업과 消費國 기업간에 메이저가 개입하는 메이저 依存型거래, ④ 産油國 국영기업 또는 왕족 등이 현물시장에 공급하는 현물거래의 4가지로 다양화되었다.

G-G거래는 長期原油공급계약으로서 선진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代價 또는 후진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1973년 이후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70년대 후반에는 公示價格에 의한 G-G 거래보다는 가격조정과 비밀거래가 가능한 D-D 거래가 크게 증가해 왔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년중 G-G 거래 및 D-D 거래에 의한 原油거래량은 全體去來價의 7.9%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에는 42.2%로 5배 이상의

〈表-4〉 原油 去來方式의 변동추이

(單位: 百萬B/D)

	1973	1975	1977	1978	1979
産油國去來量	2.4 (7.9)	4.5 (17.0)	9.6 (32.3)	9.7 (33.4)	12.8 (42.2)
G/G 베이스	1.5 (5.0)	2.3 (8.7)	3.7 (12.7)	4.6 (15.8)	5.0 (16.5)
D/D 베이스	0.9 (2.9)	2.2 (8.3)	5.9 (19.9)	5.1 (17.6)	7.8 (25.7)
메이저去來量	27.9 (92.1)	22.0 (83.0)	20.1 (67.7)	19.3 (66.6)	17.5 (57.8)
計	30.0 (100.0)	26.5 (100.0)	29.7 (100.0)	29.0 (100.0)	30.3 (100.0)

註: 1) ()内는 占有率임.

〈資料〉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1980. 2.

증가를 보였으며, 반면에 메이저를 통한 거래량은 1973년 92.1%에서 1979년 57.8%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30%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現物市場에서 原油거래량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8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現物市場은 원래 경기변동과 계절적인 수요변화에 따른 原油수준의 차질 및 油種間 제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補助市場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제2차 石油波動時 原油의 부족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原油 확보의 補助窓口로서 확대되었는데 최근에는 原油供給 과잉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剩餘原油의 投資窓口 역할을 담당하여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1979년 이전에 國際石油거래의 3~5%에 불과하였던 것이 최근에는 15~20%로 크게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原油공급경로의 다양화와 더불어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은 原油先物去來의 실시이다. 1983년 3월 美國의 商品先物去來委員會(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시카고 商品去來所 및 뉴욕 商品去來所에 史上 처음으로 原油의 先物去來를 허용하였다. 原油는 거래량이 많고 가격변동폭이 심해 이미 盛行中인 非鐵金屬, 穀物 및 石油類製品등의 先物去來에 못지 않게 중요한 先物去來의 하나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4) 石油製品의 소비구조 변화와 製品間 需給不均衡

石油소비량의 감소와 더불어 세계의 石油製品別 소비 패턴도 크게 변화하였다. 즉 産業用 연료인 重油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燈油, 輕油 등의 中間溜分 제품과 揮發油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石油소비가 輕質化하고 있다. 1973~1981년간 自由世界의 石油製品 소비실적을 보면(〈표-5〉 참조) 重油의 소비가 18.6% 감소한 반면, 揮發油 및 中間溜分은 각각 4.7%, 7.4% 증가하였다. 重質油의 소비감소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으로 각국이 工業用 연료에서 石油代替를 활발히 추진한 결과라 하겠다. 揮發油의 경우 1970년대 전반까지 自由世界 소비량의 半 이상을 소비하였던 美國의 비중이 계속 저하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石油소비량은 선진국과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石油製品 소비의 輕質化에도 불구하고

〈表-5〉 自由世界의 主要石油製品 소비추이
(單位: 百萬噸/年)

		1973	1979	1981	期間增減率(%)	
					81/79	81/73
揮發油	美國	312.7	323.5	299.3	-7.5	-4.3
	캐나다	26.7	33.8	31.6	-6.5	18.4
	西유럽	132.6	148.7	139.1	-6.5	4.9
	日本	42.8	46.2	39.8	-13.9	-7.0
	其他	82.1	106.2	115.4	8.7	40.6
	計	596.9	658.4	625.2	-5.0	4.7
中間溜分	美國	200.7	231.2	199.2	-13.8	-0.7
	캐나다	26.2	27.1	25.9	-4.4	-1.1
	西유럽	248.7	254.6	218.9	-14.0	-12.0
	日本	50.9	61.5	60.3	-1.9	18.5
	其他	122.3	175.5	192.4	9.6	57.3
	計	648.8	749.9	696.7	-7.1	7.4
重油	美國	148.3	145.8	109.0	-26.6	-26.5
	캐나다	17.4	15.0	11.5	-23.3	-33.9
	西유럽	269.9	231.8	184.7	-20.3	-31.6
	日本	142.6	123.7	92.4	-25.1	-35.2
	其他	160.2	194.4	203.5	4.7	27.0
	計	738.4	713.4	601.1	-15.7	-18.6
其他	美國	156.3	164.8	135.7	-17.7	-13.2
	캐나다	13.4	14.2	12.6	-11.3	-6.0
	西유럽	97.7	97.3	86.8	-10.8	-11.2
	日本	32.6	33.7	31.8	-5.6	-2.5
	其他	59.1	74.4	80.5	8.2	36.2
	計	359.3	384.4	347.4	-9.6	-3.3
合計	美國	818.0	868.0	743.2	-14.4	-9.1
	캐나다	83.7	90.1	81.6	-9.4	-2.5
	西유럽	748.9	732.4	629.5	-14.0	-15.9
	日本	269.1	265.1	224.3	-15.4	-16.6
	其他	423.7	550.5	591.8	10.8	39.7
	計	2,343.4	2,506.1	2,270.4	-9.4	-3.1

〈資料〉 B. 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세계의 原油공급은 產油國의 輕質原油保存政策 등으로 인하여 重質化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세계적으로 重質油를 輕質油로 전환하는 重質油分解施設(크래킹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석유제품간의 수급불균형이 深化되고 있다.

原油공급의 重質化 추세는 산유국의 정책변화 뿐만 아니라, 世界石油매장량의 구성에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世界原油 매장량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重質油의 비중이 전체매장량의 55%

인데 반해 輕質油이면서 低硫黃油의 비중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表 - 6〉 세계의 性狀別 原油 埋藏比率

(單位: %)

	高硫黃	低硫黃	計
重質油	45	10	55
輕質油	25	20	45
合計	70	30	100

〈資料〉 大韓石油協會

1980년 현재 생산공급되고 있는 世界原油의 평균 API 指數는 33.7°로서 重質化되었으며, 이같은 原油공급의 重質化 추세는 B-C油를 비롯한 重質製品의 收率을 높이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輕·中質제품의 收率을 하락시키게 되었다.

반면 석유제품의 수요는 소비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脫石油政策으로 유연탄, 原子力 등의 代替 에너지와 경쟁관계에 있는 B-C油 등 重質製品의 수요를 격감시킨 반면, 디젤차량의 증가 등으로 輕油를 비롯한 中間溜分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켜 평균 API 指數가 1980년 현재 43.5°로 높아져 크게 輕質化되고 있다. 따라서 1980년 현재 供給原油와 제품수요의 평균 API 指數 隔差가 5.6°에 이르고 있어 重質製品의 공급과잉, 輕質油製品의 공급핍박이라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5) 精製設備의 과잉과 收益악화

石油제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와 정제능력의 증대는 精油社의 가동률을 현저히 저하시켜 精製設備의 과잉과 精油業體의 수익악화를 초래하였다.

〈表 - 7〉 自由世界の 原油처리능력 推移

(單位: 千B/D)

	1973	1975	1979	1981	1983	증 감 륜(%)	
						81 / 73	83 / 81
美 國	13,087	14,216	17,150	18,400	16,800	40.6	- 8.7
캐 나 다	1,725	1,878	2,225	2,116	2,020	22.7	- 4.5
西 유 럽	16,827	18,718	20,329	20,206	17,125	20.1	-15.3
프 랑 스	2,949	2,342	3,469	3,342	2,871	13.3	-14.1
西 獨	2,698	2,987	3,103	3,021	2,471	12.0	-18.2
이 탈 리 아	3,593	3,593	4,197	4,091	3,283	13.9	-19.8
네 델 란 드	1,826	1,840	1,857	1,827	1,551	0.1	-15.1
스 케 인	1,026	1,165	1,425	1,463	1,522	42.6	- 4.0
英 國	2,465	2,783	2,527	2,629	2,259	6.7	-14.1
其 他	2,270	2,944	3,751	3,833	3,168	68.9	-17.4
日 本	4,316	5,134	5,480	5,454	5,548	26.4	- 1.7
O P E C	3,915	4,493	4,820	4,774	4,425	21.9	- 7.3
其 他	9,718	11,793	13,537	14,355	14,350	47.7	- 0.0
計	49,588	56,232	63,541	65,305	60,268	31.7	- 7.7

註: 各年度 1月 1日 현재 處理能力임.

〈資料〉 Oil & Gas Journal에 의거 作成.

1973년 自由世界の 原油처리설비 가동률은 약 80~90%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여 설비를 증설한 결과 原油처리능력이 1973년의 약 4,959萬B/D에서 1981년에는 약 6,530萬 B/D로 증대되었으나, 예상외로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설비가동률은 65.5%로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1981년 이후는 수요감소에 대처하여 점차 설비를 감축, 1983년 현재 原油정제능력을 6,027萬B/D까지 감소시

켰으나, 지속적인 수요부진으로 인하여 설비 平均稼働率은 63~64% 수준으로 머물고 있을 뿐이다. 1973년과 1983년을 비교해 보면, 1983년의 石油製品의 소비수준은 1973년 보다 감소된 반면 1983년의 原油정제능력은 1973년 수준보다 21.5% 증가한 실정이다.

지역별 동향을 보면, 유럽과 日本의 설비과잉이 美國보다 심각하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각국간에 설비 확장경쟁으로 인하여 설비과잉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

라, 산유국의 委託精製가 급격히 감소하여 1979년 이후 설비조정(1979~83년 설비능력의 16%, 하루 처리 능력 320萬 배럴 감소)에도 불구하고 1982년 현재 설비가동률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日本의 경우에도 精油業界의 재편성 遲延으로 가동률이 60.5%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한편 美國은 1982년중 약 200萬B/D의 정제설비를 삭감하여 1982년 현재 설비가동률이 약 70%에 이르고 있다(〈표-8〉 참조).

〈表-9〉 主要国別 精製能力 삭감계획

	내	용
프랑스	● BP 전유럽 정제능력의 25% 삭감계획 일환 ● 외국자본제열인 BP, ESSO, 민족계 ELF, CFP의 5개 정유공장 폐쇄→분해장치 설치계획 ● 320만B/D(81년)→200만B/D(90년) 수준으로 유지	
西獨	● 290만B/D(81년)→200-220만B/D(90년) 수준으로 유지	
이탈리아	● 정유공장 매각(10만B/D)	
英國	● BP 전유럽 정제능력의 25% 삭감계획 일환 ● 82년말까지 약 21만B/D 삭감	
EC	● EC 10개국 정제능력 ● 급후 원유 처리량 ● 필요능력(적정가동률 80%) ● 삭감 가능량	1,620만B/D 1,000만B/D 1,200만B/D 420만B/D
美國	● 소규모 정유공장(81년도) - 총 33개 폐쇄 정유공장중 20만B/D 이하 24개	
日本	● 총 590만B/D중 97만B/D 삭감계획 추진중(85년까지) - 설비폐기(15·B/D), 휴지(39만B/D), 정제능력감축(43만 B/D) ● 통산성의 지도방침하에 정유사의 자율적 판단(주로 설비의 효율)에 따라 결정(적정 가동률: 80% 목표)	

〈資料〉 PIW, O & GJ, JPN
日本에너지 경제연구소

〈表-8〉 主要国 정유시설稼働率推移

	處理實績(千b/d)		稼働率(%)	
	1981	1982	1981	1982
美國	12,470	11,766	66.7	70.0
캐나다	1,742	1,558	79.2	77.1
日本	3,620	3,358	64.6	60.5
벨기에	558	474	53.9	68.4
프랑스	1,959	1,664	59.5	58.0
西獨	1,686	1,321	57.4	53.5
이탈리아	1,862	1,749	46.5	53.3
네덜란드	818	795	47.9	51.2
스페인	958	903	63.2	59.3
英國	1,573	1,550	63.4	68.6

〈資料〉 大韓石油協會

石油製品市場의 위축과 정제설비 가동률의 저하는 精製企業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각국은 1 배럴의 精製에 대해 5~6 달러의 손실이 발생(PIW誌 推計)하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中小石油企業이나 精製專門企業의 倒産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自由世界 전체로서 최근 2년간에 500萬B/D의 정제능력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많은 精製企業이 폐쇄되고 있음은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당국도 정제능력의 삭감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표-9〉 참조).

(1) 經常收支악화와 재정난 加重

石油소비의 감소, OPEC의 생산감축, 國際原油價의 하락 등에 따른 OPEC의 石油收入감소는 OPEC의 경상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OPEC의 경상수지는 1980년 1,150억달러 흑자에서 1982년 180억달러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1983년에는 약 31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OPEC의 경상수지 악화는 해외투자자산의 회수와 資金借入의 형태로 補填되고 있다. OPEC의 1981년 말 海外投資資產은 1,577억달러에서 1982년 말 1,352억달러로 감소된 후 1983년에도 계속 해외투자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對外借入도 1980년 112億달러, 1981년 145억달러, 1982년 157억달러로 해마다 증가하고

Ⅲ. OPEC의 당면과제와 對應戰略

1. OPEC의 當面課題

세계의 石油 및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한 OPEC의 당면과제는 經常收支의 악화와 재정난의 加重 및 OPEC의 기능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있으며, 1983년에는 2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83년에는 原油價가 배럴당 5달러 인하

됨에 따라 OPEC의 收入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OPEC의 재정난을 加重시키고 있다.

〈表-10〉 OPEC 石油收入變動 및 財政赤字현황

(單位: 10億달러)

	(1) 石油收入變動			(2) 財政赤字現況			
	82~83 變化幅	83年 推定值	82年 實績	石油收入 依存度	現金保有高	總負債	83年負債
사우디	-\$28.2	\$47.6	\$75.8	100%	\$135.0	\$ 5.5	\$ 4.4
이란	+ 2.4	20.0	17.6	98	7.0	2.3	1.4
이라크	- 1.3	8.4	9.7	99	...	0.5	0.5
쿠웨이트	+ 1.5	10.1	8.6	84	80.0	6.2	5.7
U A E	- 3.8	11.7	15.5	92	20.0	4.8	3.0
카타르	- 1.1	2.0	4.0	93	8.0	0.4	0.3
나이지리아	- 4.1	11.5	15.6	95	1.2	8.5	3.1
리비아	- 3.2	10.7	13.9	98	6.2	1.0	0.9
알제리	- 0.8	6.6	7.4	62	1.9	7.7	1.4
가봉	- 0.2	1.3	1.5	62	0.3	0.7	0.2
베네수엘라	- 2.1	13.5	15.6	95	6.4	27.5	15.8
인도네시아	- 3.7	8.8	12.5	74	2.7	10.0	3.8
에콰도르	- 0.0	1.2	1.2	55	0.3	4.5	2.5
O P E C 計	-44.6	154.3	198.9

〈資料〉 PIW

이같은 OPEC의 재정핍박은 OPEC 각국으로 하여금 대내적으로 경제진척정책의 실시 및 강화와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石油 및 石油産業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2) OPEC機能의 악화

경상수지의 악화에 따른 재정난의 加重은 產油능력에 비해 과도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高吸收國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

1981년 이후 高吸收國들은 경상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反轉하였는데 그 重要國은 그간 누적되어온 오일·머니를 활용한 본격적인 경제개발추진에 있었다. 따라서 高吸收國들은 경제개발계획의 계속 추진 및 거

액의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原油수출물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할 입장에 있다. 반면에 低吸收國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산업설비상의 문제와 OPEC의 주도적인 위치유지를 목적으로 더 이상 產油량을 줄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와같은 회원국간의 구조적인 모순의 관계가 產油 쿼터량 위반, 할인판매, 협정의 非遵守라는 악순환을 가져왔고, OPEC 자체의 분극화를 통해 結束력을 저해시키고 있다.

최근 OPEC의 내부구조의 分極化 현상을 보면, 사우디, UAE, 쿠웨이트의 카르텔中核國¹⁾,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의 價格引上促進國²⁾,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의 生産增大促進國³⁾ 및 카타르의 其他國⁴⁾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과거와 비교해

註: 1) 카르텔中核國(Cartel Core): 生産餘力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그들이 산유량을 증가시키면 油價가 하락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나라.
 2) 價格引上促進國(Price Pusher): 物理的인 生産한도 가까이 生産하고 있는 한편, 經常收入의 必要度가 높은 나라. 이들은 現水準에서의 生産을 계속하고 가능한한 油價를 인상할 것을 희망하는 나라.
 3) 生産增大促進國(Expansionist): 카르텔中核國 보다는 石油埋藏量이 적고 經常收入의 必要度가 높지만 價格引上促進國 보다는 石油埋藏量의 고갈속도가 늦은 나라. 이들은 生産규모가 비교적 작아 價格引上 보다는 市場占有率을 높이기를 바랍.
 4) 其他國(Others): 中立的인 입장을 지키는 나라로 카르텔中核國과는 달리 석유자원의 장기적 개발에 큰 관심이 없고, 카르텔의 유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

〈表-11〉 OPEC 會員國의 分極化

	카르텔中核國	價格引上促進國	生産增大促進國	其 他
1965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UAE, 이란	리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1973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	이란, 리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1975	사우디, 쿠웨이트	알제리,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1978	사우디, UAE, 쿠웨이트	알제리,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	이란, 이라크, 리비아, 카타르
1981	사우디, UAE, 쿠웨이트	알제리, 인도네시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1982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카타르

〈資料〉 노무라 總合研究所 「財界觀測」 1983. 11.

불 경우 (〈표-11〉 참조) 生産增大促進國이 크게 늘어나 카르텔 中核國과 정책대립이 深化되어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생산조정 등을 통하여 OPEC의 카르텔 유지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카르텔中核國이 석유생산 비중저하로 인하여 OPEC內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OPEC의 분열은 油價 및 산유량조정을 둘러싼 石油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그외의 정치·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상호間 利害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이란·이라크戰爭과 같은 회원국간의 군사적 대결 등은 카르텔조직으로서의 OPEC 기능을 거의 무력하게까지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간의 내분은 인종, 宗派 이념이라는 각국이 石油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2. OPEC의 對應戰略

石油輸入 감소와 OPEC結束力 약화에 대한 OPEC의 대응전략으로서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각 산유국들은 석유산업의 下流部門(down stream)의 진출 등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추진으로 上流部門의 수익감소를 補填하는 것이며, 둘째, 石油戰略의 재정립을 통한 OPEC의 결속유지와 非OPEC산유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상류부문의 이익을 유지 내지 확대해 가는 것이다.

(1) 産油國의 下流部門 진출확대

OPEC를 비롯한 각 산유국은 原油의 개발한계 및 原油販賣收入 감소 등 不振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류 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는 自國産 原油의 附加價值 제고 뿐만 아니라, 石油에 대한 系統的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산유국이 大型油槽船團의

〈表-12〉 OPEC 精製施設 擴張展望

(單位: B/D)

	1980	1985	1990 ²⁾
사 우 디	760	2,060	3,010
이 란 ¹⁾	1,290	1,200	1,585
쿠 웨 이 트	595	890	890
이 라 크	325	410	710
U A E	16	220	400
카 타 르	11	110	260
알 제 리	170	650	825
에 콰 도 르	100	180	235
가 봉	45	45	45
인 도 네 시 아	545	895	1,075
리 비 아	150	360	360
나 이 지 리 아	170	260	620
베 네 수 엘 라	1,425	1,425	1,425
計	6,002	8,705	11,440

註: 1) 內需用 精製施設만 증설

2) 1990년 最低 예상수준

〈資料〉 石油協會報

증강추진, 정제능력의 확대추진 및 石油化學産業에의 진출을 본격화함으로 原油→製品生産→輸送의一括去來(Package Deal)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0년 현재 600萬B/D에 불과한 OPEC의 정제시설 능력이 1990년에는 약 2배 증가하여 최소한 1144萬B/D에 달하게 될 것이며, 사우디의 경우 80년 76萬B/D의 정제시설 능력이 1990년 301萬B/D로 증가될

〈表-13〉 OPEC의 製品輸出 可能量
(單位: 千B/D)

	1980	1985 ³⁾	1990 ⁴⁾
總施設能力	6,002	8,705	11,440
製品生産 ¹⁾	3,600~ 3,800	7,404	9,724
國內需要 ²⁾	2,400	4,067	5,995
輸出可能量	1,200~ 1,400 ⁵⁾	3,337	3,745
製品輸出/ OPEC(總輸出)	6~7%	14%	18~20%

註: 1)稼働率 85% 수준

2) OPEC Secretariat Data

3) 確定計劃

4) 1990年 최저수준

5) 이란·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자료불충분

〈資料〉石油協會報

것으로 예상된다(〈표-12〉 참조) 따라서 OPEC의 石油製品輸出 가능량은 1980년 150萬B/D에서 1985년에는 350萬B/D, 1990년에는 최소한 400萬B/D 이상으로 증가함으로 OPEC 總輸出에 대한 製品輸出 비율이 80년 6~7% 수준에서 85년에는 14%, 90년에는 18~26%로 확대될 전망이다(〈표-13〉 참조).

한편 탱커 船腹量도 현재는 전세계의 4.4%에 불과하나, 1990년까지 OPEC는 총수출량의 40%를 自國船으로 수송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은 이상과 같이 自國內에만 한하지 아니하고, 소비국의 하류부문에까지도 진출하고 있다. 즉 쿠웨이트에 의한 걸프소유의 베네룩스 3國 및 北歐정유공장, 주유소의 매입을 비롯, 사우디에 의한 아모코 소유의 이탈리아 정유공장 및 주유소의 買收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표-14〉 참조).

(2) OPEC의 再結束과 非OPEC國과의 尤대 強化를 통한 上流部門 利益確保

제67차 OPEC 臨時總會 이후 OPEC의 石油市場 지배력은 크게 약화되었지만, 각 회원국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總會決議事項이 비교적 잘 이행되어 國際原油價를 안정시켰다.

〈表-14〉 최근 産油國의 소비국 하류부문에의 진출상황

매수자	매각자	대상 시설	시기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PC)	Gulf	네덜란드: Europort 정유공장(7.5·b/d) Terminal(5개소) 주유소(265개소)	83. 2월
		벨기에: 율활유공장, Teminal(3개소) 주유소(35개소)	
		룩셈부르크: Terminal(1개소), 주유소(309개소)	
		덴마크: Gulphaven 정유공장(8.5萬b/d) 스웨덴: 율활유공장(2개소); Terminal(8개소) : 양국도합주유소(825개소)	
Petroven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Veba 석유 (西獨정부계석유회사) (각 50% 자금부담)		① 자본금 3억3,000만 Mark ② Veba: Kelsen Kiruhen 정유소(2만b/d, 분해시설 10만b/d), 현물출자, 제품판매(손익 절반) ③ Petroven: 3억9,300만 Mark의 부담과 10만b/d의 원유 공급	84. 4월 (협정조인)
Fact Arabian사 Arabian Sea사 (사우디의민간회사)	Standard Oil of Indiana (Amoco)	이탈리아: 크루모나 정유공장(10만b/d) 주유소(1,100개소) 신회사명: TAM-OIL	83. 5월

〈資料〉日本 歐美石油産業調査보고서, 석유정책, 83. 10. 5.

아직 OPEC는 카르텔로서 石油市場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와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OPEC는 창립초기부터 내부분열에 의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OPEC 카르텔機能 붕괴예상」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은 회원각국의 노력의 결과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각 회원국은 OPEC의 결속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共同 石油政策의 확립을 통해 石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石油政策은 80년초 OPEC 長期石油戰略委員會가 마련한「長期石油戰略案」에 나타난 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전략에 있어 주요 문제는 생산조정체계의 수립인 바 OPEC는 石油공급면에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石油생산을 제한하는 등 石油생산능력을 1985년까지 약 3500萬배럴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관리를 위해 石油공급이 과잉될 때 產油量을 제한하며, 產油量 제한으로 石油收入이 부족하게 되는 산유국에는 별도의 基金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剩餘生産能力을 사용하여 증산함으로써 단기간내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었다. 한편 장기적 가격관리를 위해 OPEC는 最低價格(floor price)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i) OECD 전체의 인플레이션, ii) 주요국의 通貨變動率, iii) OECD 전체의 실질 GDP 성장률 등을 고려, 每分期마다 油價를 조정할 방침이었다.

물론 이상과 같은 OPEC의 전략은 이란·이라크 戰爭으로 1981년초부터 실시하리라는 당초의 계획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나, 石油를 통해 공업화를 달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 모든 산유국

의 石油政策의 궁극적인 목표인 바 이는 기본이념으로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OPEC 각국은 공동보조를 위하여 結束을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한편 OPEC는 OPEC 자체 뿐만 아니라, 非OPEC 산유국과의 관계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OPEC가 非OPEC를 포함하여 세계전체의 產油國機構의 창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OPEC가 世界石油 總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되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만회하고, 또 OPEC의 내부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간주된다.

IV. 국제石油企業의 최근동향과 對應戰略

國際石油企業은 메이저 獨立系石油會社 및 產油國 國營會社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국제석유산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메이저, 특히 세계 7대 메이저¹⁾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國際石油企業의 최근동향

70년대 두차례의 石油波動으로 메이저 7社의 原油공급량, 原油처리량, 製品판매량은 각각 42.3%, 31.6%, 2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메이저의 매출액과 純益은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70년대를 통하여 대폭 증대되었다. 즉 메이저 7社의 총 매출액 합계는 1972년 767억 달러에서 1979년 3,445억 달러, 1981년 4,700억 달러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純利益의 합계도 제1차 石油波動 이전까지 최고 4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74년에는 100억 달러를 상회

〈表-15〉 메이저 7社의 영업규모 추이

(單位: 百萬B/D)

	1973	1975	1977	1979	1980	1981	81/73 (增減率)
原油供給量	31.1	24.0	24.8	22.8	19.3	18.0	▲42.3
原油處理量	23.3	18.9	19.5	19.8	17.9	15.9	▲31.6
製品販賣量	24.2	20.5	21.6	22.3	20.4	19.1	▲21.0
總賣上額(10億달러)	104.1	187.7	238.7	344.5	440.5	469.9	351.6
純利益(10億달러)	8.72	8.02	9.04	21.08	23.48	19.74	116.4

〈資料〉各社年次報告書

註: 1) 7대 메이저는 Exxon, Royal Dutch Shell, Mobil, Socal, Texaco, British Petroleum, Gulf임.
Gulf는 최근 Socal에 흡수합병됨.

하였으며, 1979년에는 1978년에 비해 倍增하여 210억 달러에 달하였다(〈표-15〉 참조). 이와 같은 추세는 메이저 뿐만 아니라, 一貫操業體制를 갖춘 石油企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1970년대는 原油조달 기반의 악화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一貫操業體制를 가진 石油企業은 상당한 이익을 획득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高收益을 누린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原油 및 제품가격의 급등과 高收益을 배경으로 메이저 7社는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에 총매출액과 總資産은 급격히 증대하

였으나, 純利益의 총매출액 및 總資産에 대한 비율은 原油가격이 폭등한 1973년, 1974년, 197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비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표-16〉 참조). 各企業의 영업기반이나 재무구조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차 石油波動 이전에는 배럴당 판매이익은 낮았지만 총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은 6% 수준이었으며, 總資産에 대한 이익률도 7~8%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石油波動 이후에는 가격이 폭등한 73~74년, 79~80년을 제외하고는 對總賣出額 이익률은 3~4%, 對總資産 이익률은 5~6% 수준으로 저하하여 불안정한 실정이다.

〈表-16〉 메이저 7社의 平均利益率추이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利益 / 總賣上(%)	6.2	8.4	6.1	4.3	4.2	3.8	3.7	6.1	5.3	4.0
利益 / 製品販賣 IBL(\$)	0.61	0.98	1.40	1.07	1.14	1.15	1.16	2.58	3.14	2.83
利益 / 總資産(%)	6.7	8.5	8.6	5.8	5.9	5.7	5.3	9.3	8.9	6.7

〈資料〉 各社年次報告書

부문별로 보면, 1960년대까지는 OPEC 原油가격의 低水準에서의 안정과 石油수요의 신장을 배경으로 하류부문의 이익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제품가격의 急騰에 따라 수요구조의 변화로 下流部門의 수익상황은 크게 악화되고 불안정해졌다. 한편 原油조달체제가 불안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原油가격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여건에 힘입어 上流部門의 이익은 크게 증가하여 이것이 石油企業 전체이익을 제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原油의 공급과잉과 가격의 하락이 계속될 경우 그동안 石油企業에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준 기반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이미 제품수요의 감소와 操業率의 악화는 精油會社의 收益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精製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크게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제품가격의 하락이 原油價格의 하락보다도 대폭적일 경우 하류부문이 받는 타격은 더욱 심각할 것이며, 동시에 上流部門의 수익악화도 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미 1981년 메이저 7社의 利益合計가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으며 1982년에도 전년대비 20~30% 감소한 것으로 計上되고 있다. 또 앞으로 조만간 수요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 배럴당 판매이익도 감소될 것이 확실시된다.

2. 메이저의 對應戰略

이상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메이저들은 收益性에 중점을 둔 경영기반의 강화책을 실시중에 있다. 그 중요대책으로는 안정된 原油 및 가스調達體制의 재건과 하류부문의 합리화인 바, 그 중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原油 및 천연가스 調達力의 강화

石油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안정된 原油와 천연가스源의 확보는 당연히 石油企業의 최우선 과제이다. 原油조달상의 신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메이저가 실시한 上流部門의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社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매장량의 확대이다. 특히 美國 국내에서의 探鑛, 開發 및 鑛區의 리스확보가 활발히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資源保有企業의 합병·買收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探鑛 및 개발투자의 경우 60% 이상이 美國內에 투자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강화되고 있다.

둘째, 非OPEC지역에 있어 리스크契約, 서비스契約 등에 따른 개발의 추진이다. 특히 北海,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생산량 확대는 메이저의 이같은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다.

세계, OPEC와의 관계 再構築이다. 自由世界 石油확인매장량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OPEC 와의 안정적인 관계수립의 중요성은 메이저에게는 변함이 없다. 산유국과의 關係再構築을 위해서는 산유국의 국가개발계획에의 참가, 각종 서비스계약 및 리스크 계약 등에 의거 새로운 장기적 관계의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 경우 상대국의 선정에 있어서는 칸트리·리스크와 保有資源量 등을 기준으로 선택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下流部門의 재편성

과잉설비의 증대와 採算性의 악화,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제능력구성상의 불균형등 下流部門이 안고 있는 문제는 1970년대에 이미 顯在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수요가 착실히 伸張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충분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요의 격감과 소비구조의 急變을 계기로 메이저는 과감하게 합리화 작업을 단행하였다.

첫째, 세계 각처에 있는 정유공장의 폐쇄이다. 유럽, 아메리카, 캐나다를 중심으로 최근 2년간에 메이저 7社は 최소한 200萬B/D의 처리능력을 폐쇄하였다.

둘째, 설비근대화의 추진이다. 重質油分解裝置와 多油種處理可能設備의 도입을 급속히 추진하여 수요의 輕質化에 대처함과 동시에 原油處理의 신속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셋째, 정유시설의 효율성 제고이다. 原油調達 코스트의 상승과 제품시장의 수요부진은 精油會社의 마진을 저하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省에너지 시스템 및 컴퓨터에 의한 코스트 管理시스템을 도입하여 精油會社의 합리화와 경비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네째, 판매망의 정비이다. 採算이 악화되고 있는 가솔린판매소 등 불필요한 판매망을 전체적으로 20~30% 축소하였다.

(3) 代替에너지 開發戰略의 수정

메이저를 비롯한 巨大石油企業은 石油資源 지배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하나로 에너지 資源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綜合 에너지 企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代替에너지 분야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이미 상당량의 자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용기술도 개발하였다. 특히 1980년에는 同事業分野를 더욱 확대하고 代替에너지 개발

계획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근 原油價格의 하락에 따라 각 메이저는 「代替에너지개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수정의 규모는 30~100億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것인 바, 이는 종래 綜合에너지 企業으로 지향하려는 기본적인 방향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石油價格의 하락에 따른 開發優先 순위의 변화 및 자금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多角化 戰略의 재검토

메이저는 石油가격의 급등으로 취득한 巨額의 이익을 경영의 多角化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제1차 및 제2차 石油波動 직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앞으로 石油産業이 종래와 같이 성장산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제시된 장기 전략의 하나로 간주되는 바, 多角化의 방향은 자원 관련분야, 尖端技術분야 등 성장산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메이저는 이 분야에 대해 활발한 기업의 買收 및 합병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非鐵, 稀少金屬의 鑛區 보유를 확대하고 通信, 事務自動化 분야 및 新素材분야 등에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황하에서는 새로이 진출한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 적자가 예상되어 이 분야에 대해 철저한 減量經營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多角化 부문에 대해 신규투자의 억제와 채산성이 不透明한 분야의 축소 내지 賣却 및 폐쇄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Exxon이 각종 벤처·비즈니스를 總括할 Exxon Enterprise社의 사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Mobil이 Montgomery Ward社의 일부 採算性이 없는 부문을 매각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例라 하겠다.

V.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당면과제와 對應戰略

1. 우리나라의 石油産業과 當面課題

70년대 石油波動이 石油 및 정유산업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60년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石油 및 정유산업이 1980년대에 와서는 성장제약조건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60년대 이후 低油價를 배경으로 急成長한 石油産業은 우리나라 경제의 石油의존도를 深化시켜 왔으며, 모든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石油소비를 증대시켜 산업

의 石油體質化 현상을 초래하였다. 더우기 石油製品의 수요감소 및 소비구조 변화는 精油産業의 가동률을 저하시켜 설비과잉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상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제약요인으로 변한 石油 및 정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성장주도산업으로 다시 변모시키는 것이 80년대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당면과제라 하겠다. 특히 80년대 들어서는 세계 石油産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OPEC와 메이저 등이 각각 石油産業의 재정비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石油産業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國際石油産業의 재편성과정에서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고 또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原油의 안정적 확보문제 둘째, 油種間 수급 불균형문제 셋째, 精油會社의 불황탈피문제이다.

2. 對應戰略

(1) 原油의 안정확보

原油의 안정확보를 위해서는 原油의 안정공급, 低價原油의 도입, 原油輸入先의 다변화, 石油資源의 개발과 비축확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가. 原油의 안정공급

우리나라는 메이저와 합작기업을 통해 精油産業을 육성 발전시켜 왔으므로 原油도입 또한 合作 메이저에 거의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兩次石油波動을 통해 메이저의 原油공급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특히 1980년 걸프 및 이란國營石油會社(NIOC)가 油公 및 雙龍精油로부터 철수하고, 1983년 Union Oil이 京仁에너지로부터 철수함으로써 原油공급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문제가 되었다.

1983년중 우리나라의 原油供給者別 수입은 메이저 및 G-G 베이스 導入이 각각 13.4%, 10.4%로 낮아진 반면, D-D 베이스 도입과 現物市場도입 비중은 각각 56.6%, 19.6%로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消費地精製主義를 포기하지 않는 한, 原油의 공급은 장기안정공급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최근과 같이 油價가 하락할 경우 原油의 현물시장에서 구입함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精油産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유국 정부 또는

국영회사와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原油공급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특히 그 동안 原油안정공급에 기여한 메이저가 合作會社로부터 철수함에 따라 原油공급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소비국 下流部門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產油國과의 합작을 추진함으로써 안정기반을 구축함이 소망스럽다 하겠다.

나. 低價原油의 도입

세계의 原油가격은 국가 및 油種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原油의 低價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81년 이후에는 世界石油市場이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로 변화함에 따라 原油도입에 있어 가격조건의 개선에 適期라 하겠다. 종래 우리나라의 原油도입계약은 原油공급이 팽박한 시기에 체결되어 產油國에 유리하도록 결정된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原油도입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原油市場을 둘러싼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정보의 입수가 필수적인바, 이를 위해 메이저와 產油國과의 협력을 강화해야겠다. 현재 세계의 石油情報은 美國의 CIA, 메이저, OPEC의 3개 단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 原油導入先의 다변화

1979년 메이저가 石油공급을 삭감함으로써 정부당국이 본격적으로 產油國과 原油도입교섭을 실시하였는 바, 당시에는 原油의 物量確保가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導入先의 다변화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81년 原油導入 교섭방안을 확정 실시하여 導入先의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 中東 3國에 全的으로 의존해 온 原油導入先을 1983년 현재 15개국으로 다변화하고 中東產油國 의존도를 74%로 감소시켰다.

〈表-17〉 原油導入先別 현황

(單位: 千Bbl)

年次	메이저	G-G	D-D	現物市場	計
1977	154,786 (100.0)	-	-	-	154,786 (100.0)
1980	93,931 (51.4)	53,394 (29.2)	29,896 (16.4)	5,640 (3.1)	182,861 (100.0)
1981	65,373 (35.8)	61,303 (33.5)	51,436 (28.1)	4,704 (2.6)	182,816 (100.0)
1982	47,218 (26.5)	41,057 (23.0)	76,024 (42.6)	14,070 (7.9)	178,369 (100.0)
1983	25,793 (13.4)	20,092 (10.4)	109,302 (56.6)	37,782 (19.6)	192,969 (100.0)

註: () 내는 구성비임.

〈資料〉 대한석유협회, 石油資料

□ 研究資料 □

그러나 우리나라의 原油도입은 日本 등 다른 나라에 비해 中東產油國 의존도가 아직 높을 뿐만 아니라, 導入先의 다변화도 OPEC加盟國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OPEC는 減產政策을 실시중이며, 앞으로도 石油生産을 크게 증대시키지 않을 계획인데 반해 非OPEC 諸國의 생산 및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原油導入先 다변화는 멕시코, 알래스카, 캐나다, 英國 등 非OPEC 제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石油資源의 개발과 備蓄증대

산유국의 石油保護政策에 대응하여 原油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가 직접 油田을 개발하는 등 上流部門에 진출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80년 들어 大陸棚개발을 위해 시추를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1981년에는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沿岸에 石油開發計劃에 참여하는 등 해외 유전개발도 추진중이다.

유전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漸增하는 石油소비에 대응하고 산유국의 減產政策 및 消費國下流部門 진출정책 등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전개발에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原油備蓄문제에 있어서는 1983년말 현재 62日分(정부비축 24日分, 민간재고 38日分)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국내 생산이 전무한 점과 中東정세의 불안을 고려할 때 국가정책의 最優先順位에 두어 선진국 수준인 120日分 이상을 확보해야 하겠다.

(2) 油種間 需給 불균형

국내 石油類의 소비구조도 국제적인 추세와 같이 原油供給部門에서는 重質化, 製品需要面에서는 輕質化 현상이 나타나 油種間 수급불균형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1985년 이후에는 불균형이 더욱 深化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유국에서 생산되는 原油는 더욱 重質化 되어가고

(表-18) 中東依存度 감소 및 導入先 多邊化推移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中東依存度(%)	100	99	97	88	75	74
導入國數	3	4	5	9	9	11
新規導入國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리비아	브루나이(베네수엘라미도입)	이라크, 이집트, 오만, 베네수엘라, 카타르, UAE

(資料) 대한석유협회 「石油年報(1983)」 및 石油協會報

(表-19) 輕·重質油 過不足전망

(單位: 千B/D)

		1982	1983	1984	1985	1986
輕 中質油	需要	240	262	288	318	338
	供給	240	262	284	302	308
	과부족	0	0	▲4	▲16	▲30
重質油	需要	265	269	239	219	195
	供給	265	275	275	275	275
	과부족	0	6	36	56	80

- 註: 1) 輕, 中質油 公급에 輸入 LPG 포함
 2) 輕, 中質油 生産收率은 1982년도 실적 기준
 3) 施設能力은 790천B/D를 기준하였으며 安定稼働率은 75%를 적용

(資料) 石油協會報

있을 뿐만 아니라, 硫黃함량과 重金屬 함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유국은 輕質原油 보존정책의 일환으로 輕質 原油와 함께 重質油를 강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수입원유의 重質化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반면에 국내 石油類 소비구조는 수송용 産業·住居用 및 석유화학용 등의 輕質油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脫石油政策 및 에너지源의 다변화 시책에 따라 發電 및 산업부문에서 사용연료를 B-C油 등 重質油에서 유연탄, LNG 및 原子力으로 代替가 추진되어 重質油의 수요감소가 가속될 전망이다.

重質原油의 수입증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重質原油의 정제시설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漸增하

는 輕質製品 수요증족을 위해서는 B-C油를 輕質油로 전환하는 重質油分解施設이 건설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을 건설함에 따른 문제점은 거액의 소요자금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精油會社가 단독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精油社 공동투자를 통한 共同플랜트의 건설이나 半官半民방식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위험도 분산시키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表-20〉 주요分解施設 개요

分解方式	原料油	特 性	所要資金
直接脫黃(直脫)	常壓 / 減壓殘油	● 脫黃反應(強力)中 中間溜分 生産可	● 750억원
流動 接觸 分解 (FCC)	脫黃 減壓 輕油	● 휘발유收率 50~70% ● 中間溜分 10~30% ● 減壓殘油도 生成 ● 가장 많이 普及된 分解장치 ● 원료의 間脫처리 要	● 570억원 ● 운전비비교적 저렴
水素化 分解	減 壓 輕 油	● 등유, 경유수율 최고 80~90% 可能 ● 減壓殘油도 生成	● 840억원 ● 운전비 高價
熱 分解 方式 Visbreaker Flexi coker	減 壓 殘 油	● 熱分解에 의한 重質油의 粘度低下 또는 中間溜分 生成(10% 程度)	● 건설비 저렴
		● 微粒코크스를 고온에서 열매로 순환 ● 發生하는 코크스를 底카로리 가스로 ● 中間溜分收率 30~50% ● 中間溜分 製品의 脫黃처리 要	● 750~1,500억원
Delayed coker		● 中間溜分收率 30~50% ● 中間溜分 製品의 脫黃처리 要	● 750~1,500억원

〈資料〉 石油協會報

(3) 精油會社 경영악화예의 對應

우리나라의 精油會社는 제 2차 石油波動이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가동률의 저하, 輸入原油價 급등, 환율의 상승등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다.

제 2차 石油波動 이후 1979~82년간 精油會社의 경영실적은 〈표-21〉과 같다. 1979년에는 精油 5社가 194억원의 稅後利益을 示顯하였으나, 1981년과 1982년에는 각각 484억원, 221억원의 적자를 기록 精油會社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 1982년 이후 精油社의 경영실적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경영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국내 他産業이나 외국의 精油會社에 비해서도 수익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精油會社의 수익확보를 통한 건전한 발전은 정유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바, 精油會社의 경영기반 확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精油會社의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정제시설의 活用度제고, 경영합리화의 추진, 사업의 다양화 및 綜合에너지 기업으로의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첫째, 정제시설의 活用度제고를 위해서는 유류실비를 활용, 국내 賃加工輸出이 적극화되어야 하겠으며, 老朽化된 시설 및 에너지多消費에 따른 遊休施設등은 他用途로 전환을 추진해야 하겠다. 1982년 雙龍精油和 湖南精油가 460萬배럴을 賃加工 수출하여 가동률을 1.6%포인트 상승시키고 약 80억원의 수익증대를 가져온 것은 前者의 대표적인 예이며, 油公 1號基(55千B/D)와 湖油 1號基(100千B/D)의 老朽施設을 Visbreaker 시설로 전환하여 輕質油 증산을 도모한 것은 후자의 좋은 예라 하겠다.

둘째, 경영합리화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美國의 정유산업은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을 경험하면서 에너지 효율화에 力點을 둔 결과 정유부문에서 배럴당 에너지 소비량을 1972년에 비해 20% 이상 절감시켰으며, 1985년까지 8%의 追加節減計劃을 추진

(表-21) 精油社의 損益狀況

(單位: 억원)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計
1979	1. 세 전	233	161	33	-	5	432
	○精油	0	122	△21	-	△5	96
	○기타	233	39	54	-	10	336
2. 법인세등	120	100	15	-	3	238	
3. 稅後	113	61	18	-	2	194	
1980	1. 세 전	29	189	△99	△80	△21	18
	○精油	△233	130	△77	△80	△34	△294
	○기타	262	59	△22	-	13	312
2. 법인세등	376	109	17	-	-	502	
3. 稅後	△347	80	△116	△80	△21	△484	
1981	1. 세 전	68	△56	187	50	6	155
	○精油	△58	△104	134	△5	△11	△44
	○기타	126	48	53	△45	17	199
2. 법인세등	178	46	144	-	8	376	
3. 稅後	△110	△102	43	△50	△2	△221	
1982	1. 세 전	290	277	271	96	42	976
	○精油	97	253	205	228	30	813
	○기타	192	24	67	△132	12	163
2. 법인세등	131	124	148	-	15	418	
3. 稅後	159	153	123	96	27	558	

註: 其他部門내역:

油公—석유화학 유통유, 湖油—유통유, 京仁—발전, 雙龍—유통유, 極東—유통유.

〈資料〉石油協會報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各精油社는 폐열회수보일러설치, 熱效率향상 및 工程개선으로 상당한 原油節減을 示顯한 바 있는데, 이같은 原油 절감노력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精油會社는 1980년 變動換率制 실시 이후 막대한 換差損이 발생하여 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이룩해야 하겠다.

換差損의 발생은 Shipper's Usance 및 Banker's Usance 기간중의 환율변동에서 나타나는 바 Shipper's Usance 기간에 대해서는 先物換去來에 의해서, Banker's Usance에 대해서는 輸入金融의 元貨金融化 또는 先物換去來를 함으로써 換差損을 최소화 해야겠다. 더우기 各精油會社는 최근 경영실적의 회복에 따라 유

(表-22) 精油會社 폐열회수 및 활용설비

		投資額 (백만원)	절감액 (연간) (백만원)
油公	1. 제3 상압증류시설의 가열로 열효율 향상(공기계열기 설치로 폐열회수)	2,000	1,580
	2. NCC 폐가스 회수시설	76	139
	3. 등유탈황장치 열교환기 설치	205	16
	4. NCC 급냉탕 개조 및 열교환기 설치	935	451
	5. NCC 가열로 열효율 향상	427	1,063
	6. 증력에 의한 원유이송설비	70	122
湖油	1.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	5,800	5,349
雙龍	1. 응축수 회수시설 설비	63	30
京仁	1. 열교환기등 7개품목 개제	300	106
	2. 보온보강공사	70	45
	3. 폐열이용 원유 예열용열교환기 설치	120	100
極東	1. V.D.U 열교환기 9기 제작 설치 복수회수시설, 보온강화	748	500

〈資料〉石油協會報

(表-23) 유전스 換差損 發生現況

	1978	1979	1980	1981	1982
유전스平殘 (億달러)	4	8	23	26	21
유전스平均期間 (일)	7	93	158	150	131
換率上昇幅 (원) (上昇率, %)	0	0	177.3 (36.6)	40.4 (6.1)	48.0 (6.7)
換差損 (억원)	0	0	4,078	1,050	1,008
當期純利益 (억원)	280	193	△485	△175	558

〈資料〉石油協會報(1983. 9)

전스 기간을 단축시켜 換差損의 발생여지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세제, 精油會社의 사업다양화 추진이다. 제2차 石油波動後 國際石油産業의 재편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세계 각국의 精油會社가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精油業體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上流部門 및 下流部門의 진출을 확대해야겠다. 즉 국내의 油田개발 및 가스田 개발을 적극화하고 原油 및 가스의 운송사

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원료를 확보하는 한편 석유화학 및 潤滑油事業 등 下流部門에 진출함으로써 原油 생산에서 최종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系列化를 통한 原價절감을 달성하여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립해야 하겠다.

네째 綜合에너지 기업으로서 개편추진이다.

메이저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이 精製産業의 성장한계를 인식, 사업규모의 축소, 業種전환 및 綜合에너지 産業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精油産業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의 확립을 위해 기존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綜合에너지 기업으로서 성장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綜合에너지企業이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복합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해 가는 기업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精油會社도 LPG, LNG 등 가스事業, 石炭 개발사업, 原子力개발사업 등에 진출함으로써 綜合에너지 企業을 이룩할 수 있다. 이로써 변화하는 에너지 소비 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石油波動 이전의 세계석유시장 및 石油産業構造는 2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PEC 및 메이저를 중심으로 石油産業이 재편성되고 있다.

OPEC 각국은 上流部門의 수익감소에 대한 對應策으로 自國 및 소비국의 石油産業 下流部門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각국의 정유산업을 크

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OPEC간의 結束강화와 非OPEC 產油國과의 相互協力體制를 구축함으로써 上流部門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再整備作業도 전개하고 있다.

石油波動 이전까지 世界石油市場을 주도해온 메이저 各社도 에너지 및 각종 자원에 대한 지배력 강화, 非OPEC 지역에서의 石油生産 증대, 對OPEC 관계의 재구축 등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國際石油産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石油産業의 하류부문에 대한 既存事業體와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투자 등에 있어서도 과감하고 철저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石油産業은 兩次 石油波動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성장제약 요인으로 轉落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國際石油産業의 재편성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石油産業의 대응전략은 原油의 안정확보문제와 油種間수급 불균형 문제 및 精油會社의 경영악화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原油의 안정확보를 위해서는 原油의 안정공급 뿐만 아니라, 低價原油의 도입, 原油導入先의 다변화 및 石油資源의 개발과 비축확대를 위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油種間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重質原油 精製施設과 重質油分解施設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겠다. 또 精油會社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제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다양화 및 綜合에너지 企業으로의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경영기반을 공고히 해야겠다. * (월간 산업기술)

청탁풍조 배격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자